



{ 전라북도
관광스토리텔링 210選

Tourism Storytelling

여행



강과 산이 어울려 인심 좋게 사는 사람들

충의열사가 많은 충효의 고장. 유서깊은 명승 고적 · 수려한 자연환경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 임실은 넉넉한 문화의 고장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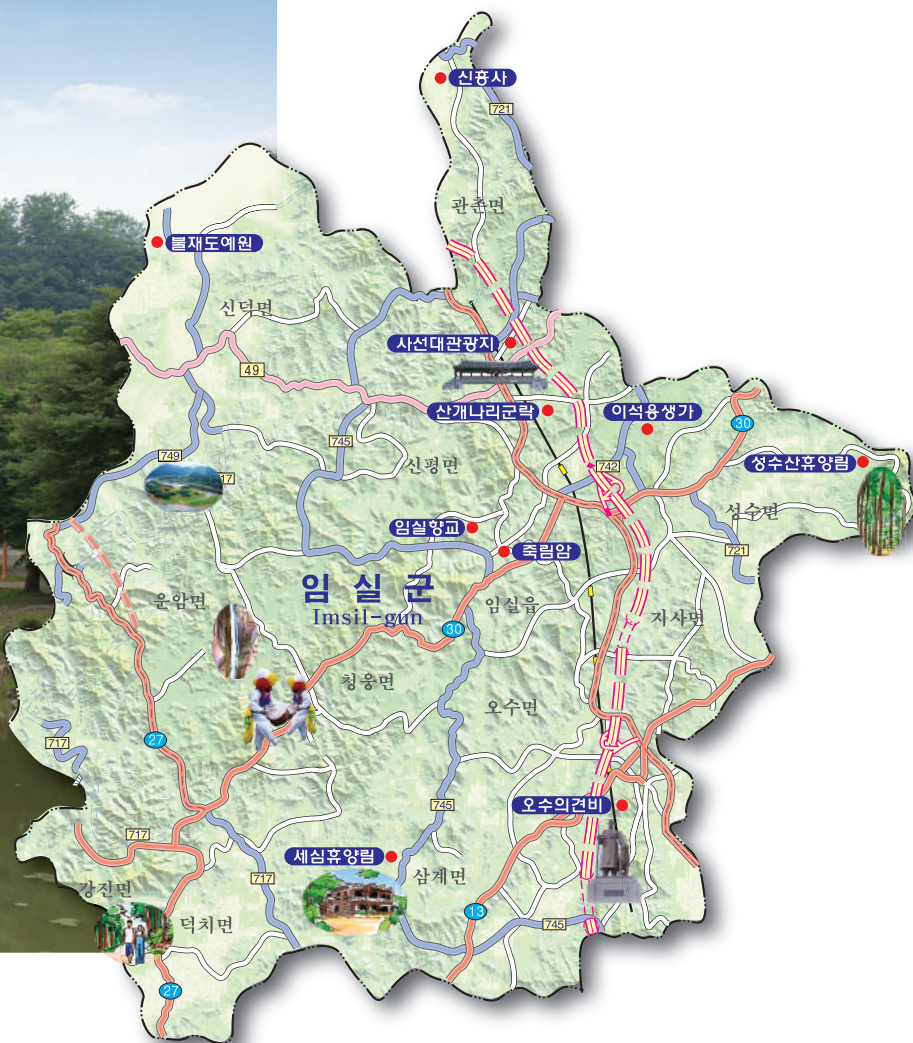
1. 아픔도 깊고 아름다움도 깊어라 - 옥정호 ● 06
2. 섬진강과 문학 ● 11
3. 대한민국 농악의 중심 - 임실 필봉농악 ● 17
4. 임실의 두 자랑 - 소충 · 사선 ● 25
5. 나라를 위해 초개처럼 버린 목숨 - 이석용 장군과 소충사 ● 33
6. 건국(建國)의 정기를 간직한 산 - 임실 성수산 ● 38
7. 천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태어난 개 - 오수의견문화재 ● 42
8.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 임실 치즈마을 ● 48
9. 소설 『혼불』의 원무대 - 둔덕이씨 집성촌 ● 53
10. 그 명성만큼이나 내실 있는 마을 - 삼계면 박사골 ● 59
11. 완벽한 석조예술의 극치 - 용암리 석등 ● 63



▲ 임실 사선대 전경

사선녀의 전설이 있는 임실소충사선문화제

충·효·열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열리는
소충사선문화제에는 사선녀의 아름다운 전설이 아련하게 담겨있다.



관광문의처 : 임실군 문화관광과 ☎ 063-640-2540



▲ 옥정호로 흘러가는 섬진강

1. 아픔도 깊고 아름다움도 깊어라 - 옥정호

흐르는 물을 가두는 것은 사람뿐이다. 섬진강 상류를 찰랑찰랑 흘러가던 물줄기가 임실군 운암면 옥정리에서 뚝 멈추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다목적댐'이라 불렀다. 다목적이라면, 목적이 여러개라는 뜻인데, 흐르는 물을 막아 이루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였을까?

섬진강 물을 막아 댐으로 만드는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다. 유사 이래 가장 급진적으로 전북의 물줄기와 농지를 바꿔버린 '동진농지개량조합'에 의해 1926년에 1차로 준공이 됐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사업에 의거해 1965년에 다시 준공됐다.

옥정호는 목적이 여러개여서 그런지, 이름도 여러개다. 옥정호라는 이름은 호수로 부를 때의 이름이고, 보통은 '운암 저수지'



라고 많이 부른다. 혹자는 운암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을 막기 위해 흙을 쌓은 것이 댐이고, 그 댐 안에 갇힌 것이 결국 호수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불리는 운암댐과 옥정호. 유역 면적과 저수면적을 따져보면 총 저수량이 4억 6천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만한 양인지, 얼른 가늠이 되지 않는다.

임실 옥정리에서 막힌 물은 반대쪽인 정읍 칠보 쪽으로 넘어가 부안 계화도 간척지 일대와 호남평야를 적시는 관개용수가 된다. 그리고 물을 배수하면서 그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호남지방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운암댐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 운암댐의 완공으로 연간 1억 6634만 7000kWh의 전기와 연간 2억 2500만㎥의 각종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초당 1,400㎥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옥정호에 갇든 사연

하지만 자연을 거슬러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꼭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이었고, 당시만 해도 가장 거대한 호수였으니,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했다. 정들어 살던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재도구 몇



▲ 섬진강 다목적댐



◀ 섬진강 다목적댐 상부

호르는 물을 가두는 것은 사람뿐이다. 섬진강 상류를 찰랑찰랑 흘러가던 물 출기가 임실군 운암면 옥정리에서 뚝 멈추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다목적댐’이라 불렀다. 다목적이라면, 목적이 여러개라는 뜻인데, 호르는 물을 막아 이루고자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개만 챙겨두고 등지를 옮겨야 했다.

하지만 옮기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보니 더 기가 막혔다. 일본이 옥정호 실향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곳은 부안 계화도 간척지였다. 지금이야 계화미가 질 좋은 쌀로 이름이 났지만, 당시만 해도 계화도는 아직 찼물도 덜 빠진 척박한 땅이었다. 임실 산골짜기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이상한 곳에 데려다 났으니 그들의 억울한 심정이야 말해서 무엇 하리.

몇 푼 안 되는 보상비는 술값으로 탕진하고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오갈 데 없는 거지처럼 극빈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소금기가 덜 빠진 간척지의 수확량은 야박하리만치 적었다. 이주민들의 눈물까지 보태져서 계화도 간척지는 늘 소금기가 가득한 바람이 불었다.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지금의 계화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고향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 참으로 서글픈 이주의 역사다.

일본이 옥정호 실향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곳은 부안 계화도 간척지였다. 지금이야 계화미가 질 좋은 쌀로 이름이 났지만, 당시만 해도 계화도는 아직 찼물도 덜 빠진 척박한 땅이었다. 임실 산골짜기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이상한 곳에 데려다 났으니 그들의 억울한 심정이야 말해서 무엇 하리.

아름이 깊은 만큼 아름다움도 깊어라

그런 서글픈 역사를 가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일까. 옥정호의 풍경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다.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아침 물안개, 초록이 돌아날 때의 싱그러움, 흰 눈이 쌓였을 때의 고적한 경지는 옥정호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이다. 때문에 전국의 사진작



◀ 옥정호의 풍경



가들이 앞다투어 옥정호를 찾는다.

유난히 신비로운 옥정호의 물안개는 일교차가 큰 기후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봄·가을철에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찬란한 물안개가 절정을 이룬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풍경을 본다면 렌즈 안에 가둬두고 싶은 욕심이 인다.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다.

옥정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몇 군데의 포인트는 이미 사진작가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났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다 해도 모든 사진이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옥정호의 역사를 알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옥정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연없는 아름다움은 없지 않던가.

옥정호의 모습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은 국사봉 전망대다. 국사봉은 500미터 남짓 되는 나지막한 산인데 옥정호를 바라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망을 갖추고 있다. 국사봉에서 바라보면 옥정호 안에 커다란 봉어 한 마리가 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봉어섬’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외안날’ 마을이라는 인공섬이다. 원래는 섬이 아니었으나 댐을 막으면서 물이 차올라 섬처럼 고립돼버린 것이다.

잡지와 신문에 소개되면서 외안날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다. 인공섬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항상 집이 비어있다)과 도시에서 귀농해 농사를 짓는 부부가 살고 있다. 1년 쯤 전 농사 짓는 부부를 찾아간 적이 있다. 밭고랑이 하도 정갈하게 갈려 있길래 누가 농사를 짓느냐고 물었더니, 건너편 용운리 주민들이 아직도 배를 타고 오가며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외안날 마을의 농토는 제법 넓다. 뭐든 심기만 하면 잘된다고 자랑까지 한다. 저 물만 건너면 세상이 지척인데,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배를 타고 썰하니 달리면 7, 8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인데, 외안날과 세상의 거리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멀어 보였다. 사진 촬영 한번 하자고 해도 한사코 거절을 하신다. 사진 속의 외안날이 왜 그렇게 비현실적인 세계로 보이는지, 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절감을 하게 될 것이다.

옥정호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옥정호 순환

인공섬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항상 집이 비어 있다)과 도시에서 귀농해 농사를 짓는 부부가 살고 있다. 1년 쯤 전 농사 짓는 부부를 찾아간 적이 있다. 밭고랑이 하도 정갈하게 갈려 있길래 누가 농사를 짓느냐고 물었더니, 건너편 용운리 주민들이 아직도 배를 타고 오가며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 옥정호 외안날

옥정호 순환도로다. 이 드라이브 코스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되면서 더 유명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꼭 한번 같이 가보아야 하는 곳이다.

도로다. 이 드라이브 코스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되면서 더 유명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꼭 한번 같이 가보아야 하는 곳이다.

도로 옆에는 멋진 카페와 별장 건물들이 낮은 산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옥을 그대로 뜯어와 고풍스러움을 살린 찻집도 있다. 굳이 순환도로를 다 돌아볼 필요가 어디 있으랴. 그저 가다가 눈길 머무는 것이 있다면 잠시 차를 멈추고 호수와 시선을 맞춰보시라. 각박한 생활 속에서 가지는 잠깐 동안의 여유를 옥정호가 선사해 줄 것이다.

● 옥정호 주소: 전북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 임실 덕치 진외 마을 앞 섬진강

2. 섬진강과 문학

김용택 시인의 시 '그 강에 가고 싶다'

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 간다
인자는 나도
애가 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강가에서는 그저 물을 볼 일ियो
가만가만 다가서서 물 깊이 산이 거기 늘 앉아 있고





이만큼 걸어 항상 물이 거기 흐른다
 인자는 강가에 가지 않아도
 산은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쉬었다가 저 혼자 가고
 강물은 때로 나를 따라와 머물다가
 멀리 간다
 강에 가고 싶다
 물이 산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
 그 강에 가고 싶다

지리산 자락과 어우러져 절경을 곳곳에 뿌려놓은 섬진강 상류에는 사람과 강이 나란히 어깨를 걸고 바라보는 진뢰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임실군 덕치면 장산마을.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넓은 들'만 빼면 영락없이 딱 들어맞는다는, 강촌의 서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산이 물이요, 물은 산이라 섬진강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며 누이의 가슴처럼 포근하게 한반도를 감싸는 섬진강. 지리산 자락과 어우러져 절경을 곳곳에 뿌려놓은 섬진강 상류에는 사람과 강이 나란히 어깨를 걸고 바라보는 진뢰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임실군 덕치면 장산마을.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넓은 들'만 빼면 영락없이 딱 들어맞는다는, 강촌의 서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광모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 속에도 이곳 진뢰마을과 이웃한 천담·구담·장구목·일중·구미·평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다.

강에는 가시고기와 꺾지가 노닐고, 강 주변에는 돌무덤과 선돌, 당산 느티나무 등 가치있는 민속물이 산재해 있는 이 마을에서 섬진강 시인 김용택은 태어나고 자랐다.

작고 아름다운 이 섬진강 마을에 손님들의 발길이 잦다. 수년전부터 친구끼리 가족끼리 드문 드문 찾아들었던 손님들은 이제 아예 버스를 대절할 답사단까지 동원하여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든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을 만나기 위해 나선 답사단이다. 시인의 고향인 진뢰마을은 손님을 맞느라 늘 부산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풍경과 인심은 변함이 없다.

피곤하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현이(안도현 시인)는 차라리 녹화해서 TV를 틀어놓으라고도 하지 만, 내가 먼저 반겨야지.



마음 좋은 시인은 씩 웃는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의 시가 실린 이후로는 폭이 더 넓어져 ‘김용택 시인과 함께 하는 섬진강 기행’이란 이름으로 시인의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더 늘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시인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늙은 적송으로 직접 지었다는, 낡았으나 본때가 넘치고, 작지만 아늑한 시인의 생가를 찾는다.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혼자서 혹은 수백명씩 단체로도 온다. 방학이면 강가에 캠프를 치기도 하고, 근처 가든에서 민박을 하며 날마다 시인을 만난다. 발길이 늘어날수록 섬진강 일대는 강물소리보다 웅웅거리며 땀흘리는 벌들의 소리가 더 지천에 피어난다.

시인을 만나러 오는 길에는 길옆의 작은 들꽃도 발끝에 걸리는 못생긴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을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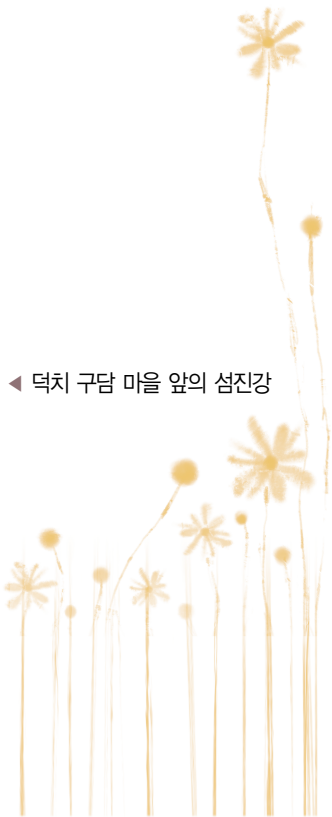
섬진강 상류는 세차게 흐르지 않고 봄바람처럼 하늘거리며 흐른다. 강 뒤편으로는 희미한 산 그림자가 사람의 마을을 굽어본다.

지금까지 살면서 섬진강을 보지 않은 날이 없어요. 눈만 뜨고 방문을 열면 언제나 강이 내 눈에 들어왔지요. 우리 집 마루에 앉아도 누워도 강물은 보였고,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가는 길도 강가고, 학교에서도 눈만 주면 언제나 거기 강이 있었으니까요.

작고 아름다운 이 섬진강 마을에 손님들의 발길이 잦다. 수년전부터 친구끼리 가족끼리 드문 드문 찾아들었던 손님들은 이제 아예 버스를 대절한 답사단까지 동원하여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든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을 만나기 위해 나선 답사단이다. 시인의 고향인 진미마을은 손님을 맞느라 늘 부산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풍경과 인심은 변함이 없다.



◀ 덕치 구담 마을 앞의 섬진강





시인의 삶이 부러워지는 순간. 섬진강의 강물은 노래가 되고, 늘 푸른 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머문다.

“요놈, 한 번 먹어봐. 맛이 괜찮혀”하며 주름진 시인의 어머니는 술있주며 매실주며 느릅나무이며 그의 삶을 한 귀통이 떼어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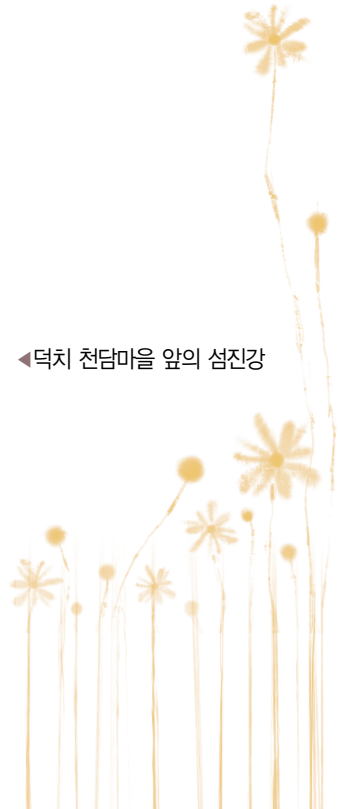
섬진강을 따라가며 만나는 마을마다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는 마을의 나이가 새겨져 있지요. 아이들이 섬진강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저 건너 ‘그 집’에 살던 ‘그 여자’가 시집을 가던 날에도 나무는 ‘버럭버럭’ 크지요. 나무는 사람들이 찾아주고 만져주고 말을 걸어주면 더 잘 크게 마련이니까요.

더불어 시인은 말한다. 섬진강가의 꽃은 어떻게 피고, 바위는 어떻게 울며, 강물은 뭐라고 속삭이며 흐르는지, 새들은 왜 봄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섬진강 상류는 바위가 많아요. 바위반 물반이지요. 산에서 사는 것이 싫다고 바위들이 떨어져 내려서 그래요. 그러다가 큰비라도 오면 저기 저 밑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조금씩 몸이 씻겨지지. 다 슬기가 숨기 좋은 작은 바위가 되고, 물제비 날리기 좋은 자갈이 되고, 발가락 간질이는 모래알이 되지요.



시인의 삶이 부러워지는 순간. 섬진강의 강물은 노래가 되고, 늘 푸른 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머문다. 섬진강가의 꽃은 어떻게 피고, 바위는 어떻게 울며, 강물은 뭐라고 속삭이며 흐르는지, 새들은 왜 봄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덕치 천담마을 앞의 섬진강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소리가 정지(부여의 사투리)까지 들린다. 물이 바위를 깨 자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얼굴에 봄꽃 같은 웃음이 핀다. 오후의 햇살에 한껏 달아 오른 강물은 반짝거리며 흘러가고, 아무렇게나 제 편한 곳에 몸을 누인 바위들과 강쪽으로 한껏 몸을 기울인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를 한숨짓게 한다.

강은 내 유일한 삶의 위안이었고, 세상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늘 강물을 따라 걷고 강가에 나가 헤매었지요. 사랑을 잃었을 때도, 사랑을 얻었을 때도, 기쁘고 슬플 때도, 강물은 내 진정한 동무였습니다.

굽이굽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때문지 않은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구한 한반도와 그곳 사람들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섬진강은 위대하다.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떠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김용택 시인의 『섬진강1』부분)

데미샘에서 광양만까지 550리 물줄기

진안 마령의 데미샘에서 시작되는 섬진강의 물줄기는 산굽이 돌고 논밭두렁 돌아 하얀 모래 위를 소리 없이 흘러 남도 오백리길을 얼싸절싸 어우르며 흐른다. 너른 들판보다 작은 마을을 휘감고 돈다. 임실을 지나며 운암과 강진, 옥정에서 잠시 숨을 내쉬고 푸르게 잠기어 있다가 다시 흐른다. 순창군 적성면 오수천, 남원군의 여천과 만나 보성강과 몸을 섞어 구례별판을 적시고, 다시 노고단에서 흘러내린 서시천을 품는다. 경남 하동 망덕포구에서 이윽고 강물은 깊어지고 푸르러 은모래 백사장의 포플러가 항시 강바람에 휩쓸리는 남해의 광양만에서 바다와 한 몸이 된다.

섬진강 물길따라 명소도 다양

섬진강 물길을 따라 그 강을 노래한 이들은 많다. 고은 시인은

굽이굽이 맑게 흐르는 강물은 때문지 않은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구한 한반도와 그곳 사람들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섬진강은 위대하다.





‘섬진강’이란 시에서 ‘빠저리거든 빠저리게 서럽거든, 섬진강을 저문 섬진강을, 아주 오랫동안 보라’ 했고, 이시영 시인도 ‘형님네 부부의 초상(肖像)’에서 ‘보랏빛 물결의 저녁 섬진강’을 노래했다.

쭉빚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의 유구한 시간의 흔적도 도처에 남겨져 있다.

섬진강이 곡류하는 전북 임실군 및 순창군의 동부 연안. 그곳만 해도 용암사, 고원리 옥지, 일광사, 운림리 고분, 어은정, 괴정리 고인돌, 석산리 가마터, 불암사지, 불암사지 마애불, 취암사지 등 강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의 명물을 빠뜨릴 수 없다.

●섬진강변 주소: 임실군 덕치면/순창군 동계면 일대

‘섬진강’이란 시에서 ‘빠저리거든 빠저리게 서럽거든, 섬진강을 저문 섬진강을, 아주 오랫동안 보라’ 했고, 이시영 시인도 ‘형님네 부부의 초상(肖像)’에서 ‘보랏빛 물결의 저녁 섬진강’을 노래했다.





▲ 임실 필봉농악 전수관 전경

3. 대한민국 농악의 중심 - 임실 필봉농악

전주에서 운암을 거쳐 임실 강진으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몇 년째 공사 중인 넓은 터가 있다. 언젠가부터 집이 한 채 두 채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10여 채 가까이 늘어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풍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임실 필봉농악(중요무형문화재 11-마호) 전수관이다.

햇볕 좋은 날, 필봉농악 전수관을 찾았다. 대지 50,302㎡의 너른 땅에 전통 한옥식 건물이 차곡차곡 들어서고 있다. 조감도를 살펴보니 정자, 전시관, 체험관, 야외공연장까지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수두룩하다. 2009년 5월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한다.

혹시나 해서 안채로 발걸음을 해보니 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 회장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반갑게 맞이한다. 모처럼 쉬는 시간이라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필봉농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오후의 짙었던 햇살은 어느덧 필봉산 너머로 누엣누엣 기울어간다.

필봉마을 이야기

옛날에 필봉마을은 엄청나게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저기 저 산 골짜기에서 600명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고 양순용)가 특별히 배운 분도 아니었고 재산가도 아니어서 어머니가 참 많이 고생하셨죠. 아버지는 말하자면 농부 한량이었어요.

오늘날의 필봉농악이 있게 한 사람은 고 양순용(1941~1995) 상좌다. 현재 필봉농악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양진성씨는 그의 아들이자 전수자이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필봉산(533m) 허리 남향받이 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가 머무는 '외양간' 형상이라고 한다.

원래 마을이름은 '중아리' 혹은 '중벙이' 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에 '필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마을 앞산 모양이 붓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필봉 풍물굿이 전승되고 있는 마을은 윗마을인 '상필봉마을'이다. 양진성 회장이 어렸을 때만 해도 좁은 골짜기 마을에 오륙백명이 '우글우글' 거리고 살았다는데, 지금은 22가구 60명이 살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필봉농악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양진성씨는 그의 아들이자 전수자이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필봉산(533m) 허리 남향받이 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가 머무는 '외양간' 형상이라고 한다.

◀ 필봉농악 전수관



필봉마을에서는 농악을 ‘풍장’, ‘매구’ 등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역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굿’이었다. 필봉농악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 마을의 주요 상쇠였던 박학삼씨(1884~1968)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봉마을의 수장고쟁이이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고 박형래(1927~2007)씨는 “박학삼 상쇠 이전에도 다른 마을로 걸립굿을 다녔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는데, 어느 해가 다른 마을로 풍물 걸립을 가서 실력이 없다고 봉변을 당한 후에는 인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박학삼, 박판봉을 필봉마을로 모시고 왔다”고 증언을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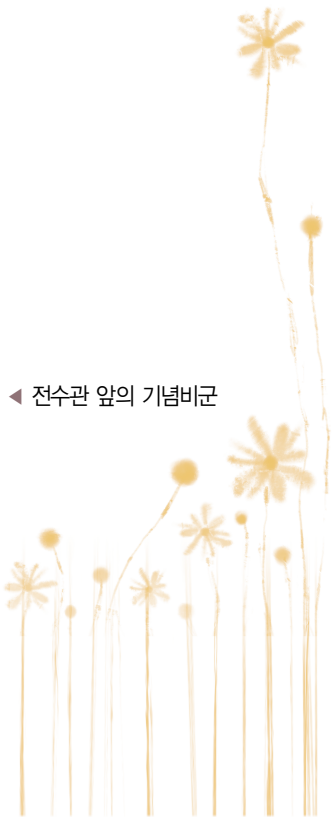
필봉마을에서는 농악을 ‘풍장’, ‘매구’ 등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역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굿’이었다. 필봉농악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 마을의 주요 상쇠였던 박학삼씨(1884~1968)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필봉농악의 특징

필봉농악은 시기와 장소,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음력 정월 초사흘 이후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집집마다 돌면서 마을의 풍요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며 행하는 뜰밧이굿(마당밧이굿), 정월 초아흐렛날에 마을당산에서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당산굿, 음력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노디고사굿, 놀이굿 형태로 진행되는 찰밥견이굿, 정초에 인근 다른 마을로 가서 벌이는 걸립굿, 여름철 농번기에 일터에서 행하는 두레굿, 음력 선달 그믐에 액을 물리치기 위해 행하는 매귀굿, 큰 굿판이 벌어질 때 대동놀음 형식으로 벌어지는 판굿, 그리고 현대적인 공연장에서 예술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벌이는 연예굿 등이 필봉농악의 종목이다.



◀ 전수관 앞의 기념비





일반적으로 필봉농악에는 판굿, 길굿을 비롯해 13종의 굿놀이
있다. 판굿은 총 20개의 절차굿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앞굿과 뒷
굿으로 구분된다. 20개의 절차굿은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굿거리
사이사이에 다양한 이음새 가락을 써서 맺음이 분명한 듯하면서도
여운을 남겨 다음에 이어질 절차굿을 대받침하고 있다.

앞굿에 해당하는 굿가락은 굿내는 가락, 외마치질굿, 오채질굿,
채굿, 호허굿, 방울진굿, 미지기굿까지이며, 뒷굿에는 풍류굿, 가진
여안굿, 재능기영산굿, 노래굿, 등도독쟁이굿, 탈머리굿까지가 해
당된다.

가락으로 보자면 쇠가락의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힘차고 씩씩한
가락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 마을굿답게 개개인의 기교보다는 단체
의 화합과 단결을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필봉농악의 진짜 특징은 연행을 할 때마다 굿의 구성
이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이다. 양진성 보존회장의 말
을 들어보자.

경연굿과 노는굿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굿
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입는 복장이 똑같다고 신는 신발이 똑같
다고 악기 구성이 똑같다고 똑같은 굿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에 따라, 시공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 마을굿
의 본질이죠.

영원한 상쇠 양순용씨

필봉산 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전해오던 마을굿이 지금처럼 유명
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필봉굿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된 것
은 1972년 호남농악발표회 때였다. 이미 마을굿이 사라져가고 있었
기 때문에 농악경연대회에 나온 패들은 모두 무속인들 출신이거나
전문 연예인들이었다. 개인들의 기량은 뛰어났으나 마을굿의 원형
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판에 양순용씨가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순전히 마을사람들로
구성된 마을굿의 원형이 필봉농악에 살아 있었다. 학계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대학가의 탈춤패와 풍물패가 필봉마을로 전수를 오기 시
작했다. 비로소 필봉농악이 꽃피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락으로 보자면 쇠가락의 맺고 끊음
이 분명하여 힘차고 씩씩한 가락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 마을굿답게 개개
인의 기교보다는 단체의 화합과 단결
을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필봉농악의 진짜 특징은 연행
을 할 때마다 굿의 구성이 유동적이
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마을굿밖에 몰랐는데 마을굿이 없어지면서 아버지가 놀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를 갈담장에 모시고 가는 게 고역이었어요. 장에 가면 인근 마을에서 굿 좋아하는 사람 5-6명이 모여들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굿을 쳤죠, 장마당에서. 그렇게 장마당 굿은 한 10년간 이어갔어요.

양진성씨가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대목이어서 제법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대에 와서 “그놈의 굿현다고” 살림을 다 말아먹은 것이다. 아버지에게 굿은 평생의 업이었다.

장마당에서 굿을 치면 굿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도 한잔씩 사주고 흥에 겨워 어울림판이 형성됐다. 그러면 양순용씨는 신이 나서 막걸리 한 말 사다가 동네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마을굿 좀 치자고 사정을 했다.

굿은 마약 같은 거예요. 한번 굿에 빠진 사람은 굿을 안치면 못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똑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잘못 만났다고 했죠. 이미 그때는 농촌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마을굿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양순용씨는 14살 때부터 상쇠를 맡아 사람들이 ‘애기상쇠’라고 불렀다. 어찌나 굿을 좋아했는지 밭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혼자 두 시간씩 굿을 쳤다고 한다. 그것을 어머니가 좋아할 리가 없었다. 집안의 가세는 기울기 일보 직전이었다. 양진성씨가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가 대목이어서 제법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대에 와서 “그놈의 굿현다고” 살림을 다 말아먹은 것이다. 아버지에게 굿은 평생의 업이었다.



◀ 양순용 선생 추모비





대사습 대회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논이 하나씩 없어졌다. 마을 사람들 동원해서 전주대회장까지 갔다 오려면 1박 2일이 족히 걸렸다. 어머니는 솔단지를 들고 굿패를 따라다녔다.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대기 위해서였다. 마을에서 연습할 때부터 대회를 치르는 날까지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나가는 돈은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대회를 한번 마치고 나면 논 한 두 마지기씩 없어지는 것이 예사였다. 양진성 회장은 여인숙에서 아버지가 혼자 우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한다.

어쨌든 대학생들이 굿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면서 필봉마을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끓었다. 아직 이농현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필봉마을 동네청년들까지 합해져서 굿패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심지어는 4H조직에서도 굿을 배웠다. 밤마다 마을 방죽에서 굿을 가르친 덕분에 60명의 필봉농악단이 만들어졌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임실 필봉농악은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곧 문화재로 등록된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떠돌았다. 하지만 5·18 광주항쟁 이후 시국이 급변하면서 줄지에 필봉농악은 “데모꾼 양성소”가 돼버렸다. 당시 대학 풍물패 중에 운동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젊은 대학생들 온다고 좋아하던 동네 사람들도 시선이 싸늘해졌다. 특히면 시끄럽다며 판지를 걸어왔다.

그 즈음 민속경연대회에 남원 삼동굿이 출전하면서 필봉을 찾던 대학생들이 모두 남원 삼동마을로 옮겨가버렸다. 양순용씨도 활동거처를 남원 삼동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15년간 굿을 가르치면서 살았고, 결국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굿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피눈물도 봤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도 봤습니다.

1980년 이후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가져온 필봉농악은 1988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을 받지만, 그로부터 7년 후 양순용 상쇠는 안과 수술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타계를 하고 만다.

젊은 사람으로서 걸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필봉마을로 돌아온 양진성씨. 99년부터 전수관을 한

대학생들이 굿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면서 필봉마을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끓었다. 아직 이농현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필봉마을 동네청년들까지 합해져서 굿패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심지어는 4H조직에서도 굿을 배웠다. 밤마다 마을 방죽에서 굿을 가르친 덕분에 60명의 필봉농악단이 만들어졌다.



동 한 동 눈물겹게 짓기 시작했다. 임실군의 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은 올해 짓기 시작한 건물이 처음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농악이 뭔데 군에서 지원까지 해줘야 하느냐,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은 물론 임실주민들까지 필봉농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필봉농악 하나 때문에 1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임실을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해외 각국의 청년들까지 이 시골구석을 찾아온단 말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 전 필봉농악 전수관에서는 <홍소리 페스티벌>이 열렸다. 전국 5개 농악이 필봉에 모여서 겨루기 대회를 연 것이다. 이제 필봉농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이 됐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농악의 중심지가 이곳 필봉인 것이다.

페스티벌에 들어간 비용은 2천만 원. 일 년에 두 번씩 대규모 굿 축제를 치르고 있다. 외부기획사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단원들이 직접 준비한다. 밥하고 술상 차리고 굿까지 치고 나면 단원들은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된다. 그래도 굿이 좋아서 한다. 굿이 좋으면 굿이나 칠 일이지, 밥상 술상은 왜 차려내는 것일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이 ‘먹을 것 없는 굿판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필봉굿을 보러 오면 꼭 밥이 있습니다. 전통 굿은 공연이 아니라 나눔이니까요.

필봉농악 단원들은 술하게 굿을 쳐오면서도 한 번도 “공연하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그들은 항상 “굿 치자”고 한다. 그래야 더 신명이 솟고 기운이 난다. 이벤트성 축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양진성 회장의 지론이다. “단순히 가락을 팔면 그 때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 사이의 정을 팔아야 오래 간다”는 것을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몸으로 체득한 것이다.

이제 필봉굿은 세계 속으로 진출할 원대한 꿈을

.....
 봉농악 전수관에서는 <홍소리 페스티벌>이 열렸다. 전국 5개 농악이 필봉에 모여서 겨루기 대회를 연 것이다. 이제 필봉농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이 됐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농악의 중심지가 이곳 필봉인 것이다.

▼ 필봉굿의 명인들 기념비





가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 국악강사를 파견하고 있기도 하다. 서양 사람들은 집단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마을굿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양진성 회장은 20분짜리 경연굿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을굿이 진정한 굿이라고 항상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필봉농악과 비보이의 만남” 같은 획기적인 공연도 구상 중에 있다.

전라북도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판소리가 개인문화의 원형이라면, 집단문화의 원형은 바로 이 필봉농악에 있다고 양진성 회장은 믿는다.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농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농악이기 때문이다. 한 해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농악을 배우기 위해 전라북도 임실로 찾아오고 있다. 이것은 판소리도 따라가기 힘든 현실적인 힘이다.

저는 필봉농악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아니면 필봉농악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것이죠. 필봉농악을 지키는 게 나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필봉농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도 생겨나길 바라고 서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걸 혼자 지켜가는 일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전수관 마루에 앉아 필봉농악의 역사를 듣고 나니, 초가을 햇살은 산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있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양진성 회장. <홍소리 페스티벌>을 마친 것이 엊그제이니 피곤도 할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도 없이 찾아온 손님을 돌려보내지 않고 필봉농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곤조곤 들려주는 열정. 그 열정과 굿에 대한 사랑이 필봉농악을 지금까지 지켜온 힘일 것이다.

- 필봉농악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25
- 필봉농악 교육관 : 063-643-1902

전라북도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판소리가 개인문화의 원형이라면, 집단문화의 원형은 바로 이 필봉농악에 있다고 양진성 회장은 믿는다.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농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농악이기 때문이다.





▲ 임실 사선대 전경

4. 임실의 두 자랑 - 소충 · 사선

임실군 관촌면에는 네 명의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사선대’가 있다. 임실과 전주 인근 사람들은 사선대를 일컬어 ‘국민관광지’라 부른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친숙한 배우가 ‘국민배우’이고 국민들이 가장 즐겨 타는 차가 ‘국민차’이듯이, 임실 사선대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지 중의 하나다.

사람들이 사선대를 즐겨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룹이나 단체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드넓은 잔디밭이 있고, 적당히 밭 담그고 놀 수 있는 냇가가 있는가 하면, 가족끼리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조각공원과 노약자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이곳에서는 축구경기나 배구경기가 펼쳐지고, 나무 그늘 아래서 도시락을 까먹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평일에는 노란옷을 입은 유치원생들이 초





록 잔디밭 위를 종종거리며 달린다. 한가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경이다.

사선대의 전설

사선대의 '사선(四仙)'은 '4명의 신선과 선녀'를 말한다. 4명의 신선과 선녀가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여 '사선대'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신선과 선녀들이 인간세계에 내려와 놀던 때이니, 역사책을 뒤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시절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2천 년 전쯤에 가 닿는다. 진안 마이산의 두 신선과 임실 운수산의 두 신선이 이곳에 내려와 노닐고 있었더라.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와 맑은 물을 바라보며 주위 풍광을 즐기고 있을 적에,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였던지 어디선가 까마귀떼가 날아와 함께 어울렸더라. 신선과 까마귀의 어울림을 흠쳐본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어여쁜 네 명의 선녀들이었다.

전래동화에서는 주로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법인데, 어찌된 일인지 사선대에서는 4명의 신선들이 목욕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네 명의 선녀가 이 모습을 보고는, 네 명의 신선을 호위하여 하늘로 사라졌다고 한다.

전설은 이 이상을 전해주지 않으니, 선녀들이 신선한테 반해서



▲ 사선대 유원지



▲ 사선대 잔디광장



◀ 사선대 앞을 흐르는 오원천

사선대의 '사선(四仙)'은 '4명의 신선과 선녀'를 말한다. 4명의 신선과 선녀가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여 '사선대'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신선과 선녀들이 인간세계에 내려와 놀던 때이니, 역사책을 뒤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데려간 것인지, 네 신선과 선녀가 원래의 짝이었는데, 신선들이 인간세계에서 한눈을 팔고 있으니 다시 하늘로 모시고 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모습을 어찌다 훑쳐본 인간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머리 허연 학발 신선들을 아리따운 네 선녀가 호위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런 선경(仙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

그 이후로 이곳은 사선대라 이름 지어졌으며, 까마귀 떼가 날아와 함께 목욕을 했던 강은 까마귀 오(烏)자를 써서 '오원강'이라 불렸다. 풍류를 아는 이들은 이곳을 찾아와 신선들처럼 즐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무릇 선비들에게 '신선의 경지' 만큼 닳고 싶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사선대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일화가 전해져 온다.

조선 정조 때 관촌면 주천리에 살았던 이달효에 관한 일화다. 이달효의 아호는 호산(湖山)인데, 문장력이 뛰어나 『호산집』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시문과 풍류를 좋아했던 그는 호남의 명사들과 두루 사귀었고 임실 현감이었던 이도재와도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이달효, 이도재 현감, 전주 판관, 남원 부사 등은 서로 뜻이 잘 맞았던지 항상 넷이 함께 어울렸다 한다.

그런데 그들이 만날 때면 가장 자주 찾는 곳이 바로 이곳 사선대였다. 스스로를 '네 명의 신선'이라고 자위하며, 오원강에 배를 띄

.....
 까마귀 떼가 날아와 함께 목욕을 했던 강은 까마귀 오(烏)자를 써서 '오원강'이라 불렸다. 풍류를 아는 이들은 이곳을 찾아와 신선들처럼 즐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무릇 선비들에게 '신선의 경지' 만큼 닳고 싶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선대 오원천변의 영벽정





워 놓고 시문을 읊으면서 세월을 노래했던 것이다.

이들 네 사람은 서로 나이도 비슷한데다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오원강에서 놀 때는 항상 관복을 벗고 평복을 입었다고 한다. 자
연히 사람들 눈에도 네 명의 신선으로 비쳤을 터. 어느덧 그들을
일컬어 네 명의 신선이라 칭하고, 이곳을 사선대라 부르게 되었
다는 이야기다.

소충 · 사선 문화제

이러한 사선대의 아름다운 전설을 기리기 위해 임실에서는 해마다 ‘사선제’라는 문화행사를 치러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사선녀선발대회’인데, 남원 춘향제의 ‘춘향 선발대회’와 함께 지역 고전미인대회로서 명성이 높다. 하지만 임실군에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의병장 이석용장군을 기리는 소충제 행사와 사선대의 전설을 기리는 사선제 행사가 서로 경쟁하듯 치러지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임실군에서는 1999년부터 두 행사를 통합해서 ‘소충 · 사선제’로 바꾸고 임실군민의 날을 기해 5일간 문화제 형식으로 치러오고 있다. 선열들의 충효정신을 기리는 소충사,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갈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사선대가 이렇게 하나의 행사 안에 묶인 것이다.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니 축제도 효율



▲ 사선대 위의 정자 운서정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니 축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높아져서 이제는 임실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3일간 열리는 소충 · 사선제 행사 기간에는 사선녀 선발대회를 비롯해 전국궁도대회, 농악경연대회,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진다.

▼ 사선대 임실군 청소년수련관



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높아져서 이제는 임실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3일간 열리는 소충·사선제 행사 기간에는 사선녀 선발대회를 비롯해 전국궁도대회, 농악경연 대회,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진다.

이름다운 전설 세 편

● 말바위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황산마을에는 말을 타고 있는 듯한 바위가 하나 길가에 서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말바위'라 부른다. 말바위에는 믿을 수 없는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온다.

옛날 이곳은 바위골이라 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처녀 가운데 양귀비도 부럽지 않을 천하일색 미인이 하나 있었다. 마침 바위골 옆마을에는 천하명궁 소리를 듣는 힘 좋고 멋있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 활숨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땃돼지나 호랑이는 물론 나는 독수리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어느 날 이 총각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천하일색의 처녀를 보게 되었다. 마침 그 처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던 참이었다. 물 길는 처녀는 보는 순간 활 쏘는 총각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차마 그 자리에서 고백은 못하고, 총각은 매일같이 바위골 주위를 맴돌면서 처녀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야밤에 오랑캐가 마을을 습격해왔다. 순식간에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돌아가던 오랑캐의 눈에 겁에 질려 있는 그 처녀가 눈에 띄고 말았다. 처녀를 보자마자 오랑캐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는 덥석 처녀를 끌어다 말 위에 태우고 달아나 버렸다.

천하일색 미녀를 오랑캐가 끌고 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옆마을로 퍼졌다. 활 쏘는 총각을 급히 말을 몰고 처녀의 마을로 갔다. 그러나 마을은 이미 불길에 휩싸이고 오랑캐는 저 멀리 산등성이를 올라가고 있었다.

아무리 명궁이라 하지만 활로 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그러나 그대로 처녀를 오랑캐에게 보낼 수는 없는 일! 총각은 등에 매고 있던 화살 두 개를 빼내 오랑캐에게 조준한 뒤 힘껏 활시위를 당긴

이곳은 바위골이라 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처녀 가운데 양귀비도 부럽지 않을 천하일색 미인이 하나 있었다. 마침 바위골 옆마을에는 천하명궁 소리를 듣는 힘 좋고 멋있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 활숨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땃돼지나 호랑이는 물론 나는 독수리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 화살 하나가 적장의 뒷덜미에 명중한 것이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의 사랑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다.

마을사람들과 함께 달려가 보니 화살을 맞은 적장은 즉사하고 처녀는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 후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다.

총각은 천하일색 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궁금한 마음에 적장이 죽은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니, 그 자리에 있던 적장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말의 형상을 한 바위만 우뚝 서 있었다. 이제는 부부가 된 처녀와 총각은 바위 옆에 적장의 묘를 써주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는 이야기다.

● 가마바위

옛날에는 지금의 관촌면 일대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다. 강어귀에 배나들이(주천의 옛 지명)라는 나루터 마을이 있었는데, 전주나 한양으로 갈 때는 이 나루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빨랐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강에는 신선들을 태워서 건네주는 천년 묵은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봄날, 건너 마을로 시집가는 새색시가 나룻배를 기다리던 도중, 가마꾼 한 사람이 거북의 등을 바위로 잘못 알고 힘주어 밟고 말았다.

거북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는데, 그 바람에 가마가 기울어지면서 새색시는 강에 빠져 죽고 말았다.

시집가는 도중에 비명횡사한 새색시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거북이 형상을 한 자리에 새색시의 묘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자 점차로 강물이 줄어들더니, 지금의 관촌이 형성되었다. 강물이 완전히 줄어들자 새색시의 묘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솟아 묘의 표석이 되어주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이곳을 지나던 한 도인이 묘석을 보고 말하기를 “거 참 훌륭한 묘석이로다. 이 묘석 때문에 이 근방이 앞으로 매우 융성해질 것이오!”라고 예언을 했다 한다.

시집가는 도중에 비명횡사한 새색시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거북이 형상을 한 자리에 새색시의 묘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자 점차로 강물이 줄어들더니, 지금의 관촌이 형성되었다. 강물이 완전히 줄어들자 새색시의 묘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솟아 묘의 표석이 되어주었다.



● 장제무림(長提茂林)

관촌면에는 강과 관련된 전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방수리 역시 마찬가지다. 옛날 이 마을에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장사인 황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에게는 마을 앞에 버려진 넓은 땅이 항상 고민이었다. 저 너른 땅에 농사를 지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땅에 냇물이 흐르고 있는지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쓸모없는 황무지에 불과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황씨 부부는 마침내 지혜를 짜냈다. 냇물 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황무지를 옥답으로 일구기로 한 것이다. 물길을 돌리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제방을 쌓고 보를 막는 등 갖가지 대비책을 마련했다.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둑 위에는 온갖 나무를 심었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지만 부부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드디어 대역사를 끝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방을 따라 물줄기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이었다. 지형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오랜 고심과 노력 끝에 완공한 제방이 쓸모없게 돼버리자 부부의 실의에 빠졌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알 수도 없었다.

비탄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 부부의 꿈에 한 선인이 나타났다. 선인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방에 나가서 서리부터 살펴보세요. 서리가 녹은 곳과 녹지 않은 곳이 있을 것이요, 서리가 녹지 않고 하얗게 쌓여있는 곳으로만 물길을 파나가면 당신들의 고민이 쉽게 풀어질 것이요.

부부는 눈을 뜨자마자 현장으로 나가 보았다. 때마침 서리가 녹지 않은 곳이 눈에 띄었다. 선인의 가르침대로 녹지 않은 서리를 따라 도랑을 파내려갔다. 그러자 얼마 후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황씨 부부의 노력과 선인의 가르침으로 관촌면 방수리는 오늘날 넓은 황금들팎을 가지게 됐다. 지금도 들판을 파보면 냇물이 흘렀

고민을 거듭하던 황씨 부부는 마침내 지혜를 짜냈다. 냇물 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황무지를 옥답으로 일구기로 한 것이다. 물길을 돌리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 제방을 쌓고 보를 막는 등 갖가지 대비책을 마련했다.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둑 위에는 온갖 나무를 심었다.





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황씨 부부를 '황장군'이라 부르고, 부부가 쌓았던 제방을 '장제무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장제무림은 길이 150여 m의 보와 울창한 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방수리 뒷산에 커다란 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묘를 황장군의 묘로 추정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기 힘든 대역사를 이룩한 황장군 부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받들었다고 한다. 혹시 그 부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었을까?

황씨 부부를 '황장군'이라 부르고, 부부가 쌓았던 제방을 '장제무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장제무림은 길이 150여m의 보와 울창한 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방수리 뒷산에 커다란 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묘를 황장군의 묘로 추정하고 있다.

●사선대 주소: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전주남원간 17번국도 옆





▲ 소충사 전경

5. 나라를 위해 초개처럼 버린 목숨 - 이석용 장군과 소충사

소충사는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한 호남 의병장 이석용 장군을 중심으로, 그와 함께 의병활동을 한 28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임실군 성수면 소재지에서 장수 산서 방향으로 2km정도 가면 오른쪽 산자락에 소충사가 자리하고 있다. 산자락을 깎아서 그 자리에 사당을 지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사당에서는 늘 그렇듯이 엄숙한 분위기가 풍겨 나온다. 이 정도 고생도 안 하고서야 어찌 나라를 구한 의사들의 얼굴을 보겠냐는 듯, 사당의 위치는 한참이나 높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도 닦여 있지만, 웬지 사당에 오면 두 발로 걸어야 할 것 같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버렸는데, 나는 기껏 다리 아프다고 투정이나 부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석용 장군도 생각할 겸 쉬엄쉬엄 진입로를 걸어가는데, 양쪽 길가에는 무궁화가 도열하듯이 서 있다. 학교나 공원에서 보던 무궁화를 시골 길가에서 보니 새롭다. 나라를 위해 순국한 선열이 묻혀있는 곳이라는 것을 무궁화 꽃이 암묵적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진입로가 끝나면 넓은 주차장 앞에, 빨간 기둥의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홍살문을 지나 승의문을 지나면 붉은빛 보도블럭이 일렬로 쭉 깔려 있고, 그 옆으로는 또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일요일인데도 사당에는 정적만 감돈다. 아주머니 몇 분이 잔디밭 안 벤치에서 다리쉬를 하고 있다.

이석용 장군

이석용 장군은 의병장이다. 의병이란 나라의 정식 군인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난 자를 말한다.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서 태어난 이석용은 17세에 사서삼경을 통달할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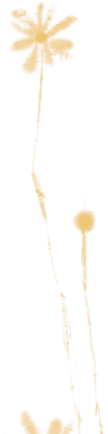
나라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흐르지만 앓았다면 그 또한 글깨나 읽는 선비로 일생을 마쳤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대는 지식인의 음풍농월을 허락하지 않았다. 음풍농월이라니, 자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다.

굴욕적인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노골화하자 이석용은 그만 책을 덮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선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뜻을 같이 할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이었다. 성수산 골짜기 상



▲ 소충사 충의문

이석용 장군은 의병장이다. 의병이란 나라의 정식 군인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난 자를 말한다.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서 태어난 이석용은 17세에 사서삼경을 통달할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 소충사 유적지군
▼ 소충사 28의사비



이암에서 동지들을 규합한 이석용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좀 더 조직적인 투쟁을 위해 마이산 용암에 모여서 “호남의병 창의동맹”을 결성한다. 이 자리에서 이석용은 의병장으로 추대된다. 1907년 8월 28일의 일이었다.

당시 호남의병 동맹단의 숫자는 무려 5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임실 진안 등 성수산 일대에서만 그렇게 많은 의병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2년에 걸쳐 진안에 주둔한 일본군을 격파하고 영광, 고창, 용담 등에서도 왜군을 격파하는 활약상을 보인다. 그러나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당하지 못하고 1908년 4월 임실에서 크게 패하고 만다. 이석용 장군은 어쩔 수 없이 의병들을 해산시키고 일본군의 눈을 피해 때를 기다린다.

그렇게 굳은 의지를 다지며 몇 년을 버티던 이석용은 1912년 임시정부가 세워진 상해로 건너갈 결심을 한다. 해외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펼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동석의 배반으로 일본 헌병에 체포되고 만다. 그때가 1913년, 결국 이석용은 1914년 1월 12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는다. 그리고 4월 4일, 37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소충사의 규모

30대의 젊은 나이를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보내고 장렬하게 순국한 이석용 장군.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1일 이석용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매년 7월 7일 이석용 장군과 28인의 의사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소충사라는 휘호는 1957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사한 것이며, “조의단(弔義壇) 28의사 추념문”은 이승만 대통령의 친동생이 쓴 것을 받아 새겼다고 한다.

현재의 묘역은 맨 꼭대기에 이석용 장군의 묘가 있고, 그 아래 28 의사 묘가 자리하고, 그 아래에 소충사 사당이 서 있는 구조다.

묘역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28의사의 묘소는 성수면 오봉리 산 1번지에 임시로 합장돼 있는 상태였다. 1995년부터 독립유공자 성역화사업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1일 이석용 장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매년 7월 7일 이석용 장군과 28인의 의사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소충사라는 휘호는 1957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사한 것이며, “조의단(弔義壇) 28의사 추념문”은 이승만 대통령의 친동생이 쓴 것을 받아 새겼다고 한다.

▼ 소충사 사당





을 벌이면서 이곳 소충사로 모시고 와 안장했다. 이석용 장군의 묘도 원래는 전남 영암군 월출산에 있었으나 유족들이 묘를 이전해와 28의사와 함께 안장하였다.

현재의 소충사 성역단지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의열사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운 곳인데, 지금도 항일독립운동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아산에 현충사가 있다면 임실에는 소충사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비유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는 충과 효의 개념이 낡고 진부한 것이 돼버렸는지, 참배객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임실군에서는 충, 효, 열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실군민의날 행사를 '소충제'라고 이름 짓고 매년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문화행사인 사선문화제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1999년 8월에 두 행사를 통합하여 소충·사선문화제를 열고 있다. 소충사전문문화제는 매년 양력 10월 5일을 전후해 관촌사선대와 임실군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석용 생가

소충사에서 나와 도로를 건넌 뒤 산길 쪽으로 2,3킬로미터 정도 들어가면 이석용 생가(전라북도기념물 91호)가 있는 마을이 있다. 산자락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삼봉마을이다.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섰건만, 가을 농번기철이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초가집이 이석용 생가다. 초가를 인지가 오래 됐는지 한껏 바래있어서 복원생가가 아니라 이석용 장군이 살았던 그때 그 집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몸체를 보아하니 후에 다시 복원한 집이 분명하다.

방 두 칸에 정지가 한 칸, 소박한 집이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마루에는 이석용 장군의 사진이 걸려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 한데, 곳곳에 손으로 맨 풀무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다. 누군가 풀을 매다가 잠시 점심이라도 먹으러 간 것인가. 대나무로 엮은 사립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다.

임실군에서는 충, 효, 열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임실군민의날 행사를 '소충제'라고 이름 짓고 매년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문화행사인 사선문화제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1999년 8월에 두 행사를 통합하여 소충·사선문화제를 열고 있다.



▲ 이석용 장군 묘



▲ 소충사 28의사 묘



◀ 구 소충사터

엄혹했던 시절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가 어찌 쉬운 일이었으랴. 충과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줄 알았던 이석용 장군과 28의사. 남의 것을 뺏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것은 결코 버릴 줄 모르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들의 짧은 일생은 다시 한 번 큰 울림을 전해준다.

자료를 살피니, 이석용 생가는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석용은 1878년에 이 집에서 태어나 1903년까지 이곳에 살았다고 한다. 이후에는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로 이사를 했다고 하니, 이 마을에서 25살까지 살았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엄혹했던 시절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가 어찌 쉬운 일이었으랴. 충과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줄 알았던 이석용 장군과 28의사. 남의 것을 뺏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것은 결코 버릴 줄 모르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들의 짧은 일생은 다시 한 번 큰 울림을 전해준다.

● 소충사 주소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산 130-1





▲ 임실 성수산

6. 건국(建國)의 정기를 간직한 산 - 임실 성수산(聖壽山)

전라북도에는 성수산이 두 개가 있다. 임실 성수산과 진안 성수산. 진안 성수산은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높은 산인데 비해, 임실군 성수산은 해발 876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하지만 임실지역에서는 최고봉을 자랑하는 명산이다.

임실 성수산이 이름이 난 이유는 그 높이나 산세 때문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오는 갖가지 신비한 설화와 전설 때문이다. 가까이는 의병장 이석용이 의병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산이고, 한국전쟁 때는 술한 수난을 당하기도 했던 산이다. 임실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성스러운 산인 것이다.

성수산의 설화는 모두가 건국에 얽힌 설화들이다. 고려와 조선조 건국 설화가 성수산에 깃들여 있다. 풍수지리에 눈이 밝은 고승으로 알려진 도선국사. 우리나라 어디에 간들 도선국사의 설화 한 자



락이 숨어있지 않을까마는, 이곳 성수산을 일컬어 도선국사가 말하기를 “천자봉조지상(天子奉朝之像)”이라고 했다 한다. 풀이해 보면 “천자를 맞이할 성지”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천자는 나랏님(임금)을 뜻하는 것이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에게 이만한 성지가 어디 있으랴?

성수산을 보고 나서 송도로 올라간 도선국사는 왕건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왕건은 큰 뜻을 마음에 묻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초야에 묻혀 살고 있었다. 도선국사는 그런 왕건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한다.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목욕재계를 하고 임실 성수산이라는 곳에 가서 백일기도를 올린다면 나라를 세우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왕건은 도선국사의 청을 받들어 성수산으로 내려와 백일기도를 올린다. 드디어 백 일째 되던 날 꿈속에서 계시가 내린다.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계시를 받은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왕건은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바위 위에 ‘환희담(歡喜潭)’이라는 글씨를 친필로 새겼다. 그리고 옆에 암자를 지어 ‘도선암’이라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전국설화는 조선을 세울 때도 그대로 이어진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임실 성수산이 이름이 난 이유는 그 높이나 산세 때문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오는 갖가지 신비한 설화와 전설 때문이다. 가까이는 의병장 이석용이 의병활동의 근거지로 삼은 산이고, 한 국전쟁 때는 술한 수난을 당하기도 했던 산이다. 임실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성스러운 산인 것이다.



◀ 성수산 상이암





역시 무학대사의 권고를 받고 이곳 성수산을 찾아든다. 역시 눈 밝은 고승들의 눈에는 “천자봉조지상”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때마침 이성계는 운봉의 황산벌에서 왜구를 섬멸하고 남원을 지나 전주로 가는 길이었다. 망해가는 고려와 마음속에 야심을 품은 사나이 이성계, 이성계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던 무학대사는 성수산 도선암에 들를 것을 권한다.

무학대사의 권고대로 도선암을 찾은 이성계는 열심히 기도를 올리는데, 어느 날 용이 나타나 몸을 세 번이나 씻겨주는 꿈을 꾸게 된다. 이른바 ‘발용대몽’이다. 이성계는 기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용이 세 번이나 몸을 씻겨주었기에 ‘삼청동(三淸洞)’이라는 글씨를 돌기둥에 새긴다. 후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곳에 있던 암자를 ‘상이암(上耳庵)’으로 고치고, 이곳에 어필각을 세워 ‘삼청동’이라 쓴 돌기둥을 안치하도록 했다.

지금도 상이암에는 어필각이 자리하고 있다. 천년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고찰담게 사찰 주변에는 오래된 고목들이 즐비하다. 상이암은 875년(현강왕 1)에 가야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니, 이성계가 이곳에 어필각을 세웠을 때 이미 500년이 넘은 고찰이었던 것이다.

이성계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절인지라, 1394년(태조 3)에 각역선사가 절을 중수했으나, 1894년 동학혁명 때 그만 불에 타 소실되고 만다. 이후 1909년에 김대원 선사가 다시 사찰을 재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절은 불에 타서 다시 재건했으나, 주위의 바위들과 나무들은 옛 정기를 간직한 채 그대로다. 족히 수 백 년은 넘은 듯한 편백나무와 이성계가 친필로 쓴 ‘삼청동(三淸洞)’ 비문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전설이나 일화는 이야기로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재 그 증거를 보니 아득한 현기증마저인다.

어필각 앞에는 이성계가 어필각을 세운 지 600년이 된 것을 기념해 1992년 8월 15일에 ‘태조고황제어필(太祖高皇帝御筆)’이라는 기념비문을 다시 세웠다. 그 옆에 자리한 바위에는 술한 사람들의 이름과 기원을 담은 문



▲ 어필각내 삼청동비

지금도 상이암에는 어필각이 자리하고 있다. 천년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고찰담게 사찰 주변에는 오래된 고목들이 즐비하다. 상이암은 875년(현강왕 1)에 가야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니, 이성계가 이곳에 어필각을 세웠을 때 이미 500년이 넘은 고찰이었던 것이다.



▼ 성상이암 어필각



구들이 새겨져 있다. 왕건과 이성계가 이곳을 다녀가 나라를 세웠으니, 언젠가는 또 누군가 이곳을 찾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지도 모를 일이다.

성수산 휴양림

성수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골이 깊고 숲이 울창해서 웬만해서는 사람이 들기가 힘든 산이다. 그런 성수산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것은 ‘성수산 휴양림’이 조성되면서부터다.

성수면 소재지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3킬로미터를 더 달리면 성수산 자연휴양림이 나타난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산길을 따라 1킬로미터 정도 더 걸어가면 어필각이 있는 상이암 입구가 보인다.

상이암에서 성수산을 오르는 등산로는 나무에 가시철사를 박아 놓아 몹시 눈에 거슬린다. 그래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쉬엄쉬엄 걸어서 정상까지 다녀와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휴양림 안에서 산책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 성수산에는 크게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원시림 형태의 자연을 갖춘데다 계곡의 물이 풍부해서 사시사철 좋은 휴양지로 이름을 얻고 있다.

성수산 일대에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이곳을 들렀다 하여 왕방리(王訪里), 수천리(數千里) 등의 지명을 가진 마을이 있고, 왜구를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을 맞았다는 아침재(朝峙)와 대왕재(大王峙) 등의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역사의 한 자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성수산에서 보내는 하룻밤이 더욱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 성수산 주소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성수산 일대에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이곳을 들렀다 하여 왕방리(王訪里), 수천리(數千里) 등의 지명을 가진 마을이 있고, 왜구를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을 맞았다는 아침재(朝峙)와 대왕재(大王峙) 등의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 오수 원동산 공원

7. 한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태어난 개 - 오수의견문화제

오수읍내 파출소 건너편에 '원동산'이라는 작은 섬터가 있다. 느티나무 10여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공원 안에 들어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낮잠 자기는 아주 그만인 공원이다.

이 공원 안에 전북민속자료 1호로 지정된 오수의견비가 세워져 있다. 의견비는 주인을 위해 죽은 개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의견에 대한 얘기는 최자(1188~1260)의 『보한집』에 실려 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김개인은 거령현 사람이다.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매우 귀여워했다. 어느 날 외출할 때에 개도 따라 나섰다. 개인이 술에 취해서 길가에 잠들었고, 마침 들불이 번졌다. 개는 가까운 곳의 냇물에



몸을 적시고 주위의 들풀을 적시어 불길을 막고 기운을 다하여 죽었다. 개인이 깨어나 개가 남긴 자취를 보고 감동해서 노래를 짓고,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낸 뒤에 지팡이를 꽂아 표시했다. 이 지팡이가 싹이 났기 때문에 이곳을 오수(獐樹)라고 불렀다.

지금이야 오수의견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실려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됐지만, 원래 오수의 개 이야기는 이 지방에서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이야기였다고 한다. 그 유래를 찾은 사람이 심병국씨고, 언론인 백남혁씨가 『고려사』 악부의 견문곡과 최자의 『보한집』에 의견비 이야기가 실린 것을 알고 서로 관련성을 찾아낸 것이다. 그걸 다시 가람 이병기 선생이 고증을 해줌으로써 임실군에 ‘보은의 개’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나무 수(樹)는 알겠는데, 오(獐)자가 좀 낯설다. 이 오자는 ‘개’를 뜻하는 한자어로 “길이 잘 든 개, 키가 4척이 넘는 큰 개”를 뜻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다. 개를 일컫는 한자어에는 여러 개가 있다. 구(狗), 견(犬), 방(尨), 오(獐)가 그것이다.

‘구’는 덩치가 작은 종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고, ‘견’은 큰 종자인데 대체로 다리가 긴 개를 이르는 이름이다. ‘방’은 견보다 큰 삼살개를 말하고, ‘오’는 4척 이상 되는 가장 큰 개를 뜻한다. 오수의 견은 바로 이 마지막 ‘오’에 속했던 것이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오’는 몽고산으로 크기가 말에 버금가고 몸

오수의 개 이야기는 이 지방에서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이야기였다고 한다. 그 유래를 찾은 사람이 심병국씨고, 언론인 백남혁씨가 『고려사』 악부의 견문곡과 최자의 『보한집』에 의견비 이야기가 실린 것을 알고 서로 관련성을 찾아낸 것이다. 그걸 다시 가람 이병기 선생이 고증을 해줌으로써 임실군에 ‘보은의 개’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 오수 의견비각





시 사나워서 길들이기가 몹시 어려운 개라고 한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오’는 몽고본산에 비해 작은 종이지만, 그래도 재래종 개와 비교하면 훨씬 큰 편이다. 이 개는 이상한 것을 봐도 짖지 않는데 한번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며 매우 사납게 군다고 한다.

오수에서는 진돗개와도 다른 품종을 지닌 이 오수견을 복원하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다. 1996년부터 오수개 육종사업에 힘써 오다가 마침내 복원에 성공했다.

공원안에는 바로 그 복원한 오수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예전에 보았던 작은 몸통의 오수견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단 북실북실하게 웨이브져 흐르는 털도 그렇고 이목구비 뚜렷하게 잘 생긴 얼굴 또한 시선을 끈다. 긴 다리와 매끈한 허리, 바짝 말려 올라간 풍성한 꼬리를 보면 이것이 우리 전통개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마치 우수견 품평대회 때나 볼 수 있는 해외 유명견처럼 보인다. 흔히 보아왔던 토종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이 개를 복원한 사람이 오수면에 살고 있는 심재석씨다. 그는 어디에서 오수견을 복원할 근거를 마련했을까? 그가 말하는 근거는 원동산 안에 세워진 의견비석(일명 개비석)이다.

민속자료로 지정된 의견비각 안에는 그저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서있을 뿐이다. 개비석이라는 데 사람 키를 훌쩍 넘을 만큼 크다. 군데군데 녹이 부식한 듯한 황색 점들이 박혀 있을 뿐, 대체 무엇 기리는 비석인지 알 길이 없다. 이 의견비석의 비밀을 풀어낸 사람이 심재석 씨다.

이 비석을 탁본을 해놓고도 처음엔 뭇인지를 몰랐어요. 아 그런 데 그걸 뒤집어 놓고 봤더니 그 형상이 바로 개였더라 말입니다.

탁본에서 드러난 오수개는 우선 귀가 서있지 않고 덩치가 큰 편이었다. 몸에 물을 묻혀서 들불을 끌 정도라면 과연 털이 길고 몸집이 큰 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그의 해석과 상상력이 더해져서 복원된 오수개는 귀가 처지고 털이 길고 덩치가 있는 바로 그 오수개가 된 것이다.

하지만 탁본을 떠보지 않는 한 개 비석에서 개의 형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2미터가 넘는 큰 비석은 왕한테나 쓰는 비석이라고 하는데, 오수 사람들이 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비석의 규

탁본에서 드러난 오수개는 우선 귀가 서있지 않고 덩치가 큰 편이었다. 몸에 물을 묻혀서 들불을 끌 정도라면 과연 털이 길고 몸집이 큰 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그의 해석과 상상력이 더해져서 복원된 오수개는 귀가 처지고 털이 길고 덩치가 있는 바로 그 오수개가 된 것이다.

▼ 의견비각 안의 비석



모를 보고 짐작을 할 뿐이다.

원래 이 비석은 오수면 상리마을에 있었는데, 1928년경 폭우로 인해 비석이 떠내려갔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떠내려간 비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마침내 비석을 찾아냈다고 한다. 비석을 찾아낸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까지 벌였을 정도. 혹여 또 비석이 떠내려 갈까봐 제각까지 세우고 안전하게 비석을 모셔놓고 있는 것이다.

오수개를 복원하기까지

지금이야 쉽게 말을 하지만 오수견 연구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오수의 개를 복원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다. 각종 문헌과 그림, 현지에서 발굴한 개뼈, 고대 동북아지역의 개들의 혈통까지 공부하면서 과연 오수의 개가 어떤 모양이었을지를 짐작했다. 또 지역주민 들의 증언을 토대로 실제 오수개에 가장 가까운 개를 복원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오수개의 생김새는 티베트산 마스티프종의 혈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 토종화한 개로 결론이 났다. “중국 주나라 주왕 때 변방의 나라에서 오견(獒犬)을 공물로 보냈다”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 오견이 오수개의 혈통일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십이지신상의 개에서도 오수견의 모습이 찾아진다고 한다.

오수개의 생김새는 티베트산 마스티프종의 혈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 토종화한 개로 결론이 났다. “중국 주나라 주왕 때 변방의 나라에서 오견(獒犬)을 공물로 보냈다”는 역사 기록에 나오는 오견이 오수개의 혈통일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십이지신상의 개에서도 오수견의 모습이 찾아진다고 한다.



◀ 원동산 내의 의견상





귀는 삽살개처럼 처지고, 꼬리는 진도개처럼 감아 올라가고, 터력은 삽살개보다는 짧고 진도개보다는 길고, 키는 한 60cm쯤 되고….

이런 모양으로 개 동상을 세운 것은 지난 97년이다. 그 이전에는 김정 진도개 동상이 서 있었다. 오랫동안 오수개 대접을 받았던 그 진돗개는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시키고, 앞으로 세울 예정인 오수개 박물관에 그동안에 있어 온 오수개에 대한 갖가지 학설과 오해, 소문에 관한 내용을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오수개의 원형에 훨씬 가까운 동상이 세워진 곳은 오수의견공원이다. 의견공원은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명견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개공원이다. 언뜻 보면 개를 숭상하는 종교인가 싶을 정도로 개에 대한 숭앙이 지대해 보인다. 하지만 개의 모습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 개가 보여준 신의와 의리, 정신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신라시대 김개인이 태어난 거령현은, 지금의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다. 오수의견의 고향이기도 한 셈이다. 지금 영천리에서는 김개인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키우던 개가 목숨을 바칠 정도였다면 그 주인의 사람 됨됨이도 보통은 아니었을 터. 개에 대한 관심이 개주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수개를 만들어 보자는 꿈을 천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오수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게 오수의 개 복원에 공력을 들이는 것일까? 이미 우리나라 대표견종으로는 진도견, 풍산견, 제주견, 동견, 삽살견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사라진 품종을 개량하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혈통고정을 하고 육종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도견이나 삽살견에 비해 전혀 뒤처짐이 없는 오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오수개 육종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임실군은 약 3년간에 걸쳐 혈통 보존 및 고정 작업을 거친 뒤 임실군 주민들에게 오수개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수개가 널리 알려진다면 관광자원은 물론이요 지역주민의 소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라진 품종을 개량하는 데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혈통고정을 하고 육종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도견이나 삽살견에 비해 전혀 뒤처짐이 없는 오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오수개 육종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천년의 세월을 거쳐 다시 살아난 개, 오수의견.

임실군에서는 희생과 충성이 담긴 오수개의 넋을 살리기 위해 해마다 오수의견 문화제를 열고 있다. 오수의견문화제는 오수면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이자, 전국에서 몰려온 우수한 개들의 경주를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한 품종들의 명견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유니크한 축제이다.

희생과 충성이 담긴 오수개의 넋을 살리기 위해 해마다 오수의견 문화제를 열고 있다. 오수의견문화제는 오수면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이자, 전국에서 몰려온 우수한 개들의 경주를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한 품종들의 명견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유니크한 축제이다.

- 오수의견문화재 주소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시장마을
- 오수의견문화재 전화 : 063-640-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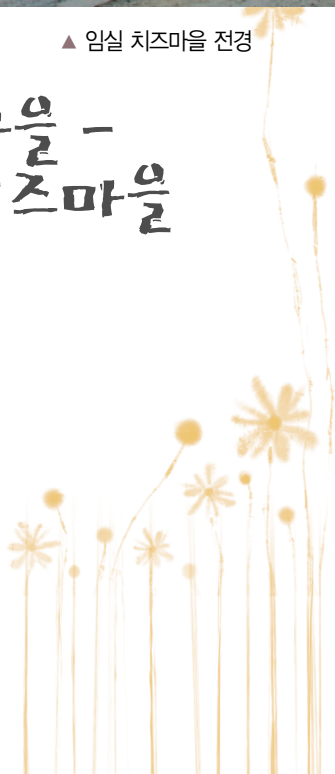
▲ 임실 치즈마을 전경

8.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 임실 치즈마을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위는 단연 피자와 햄버거다. 밥 먹자고 하면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피자먹자고 하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든다. 대체 무슨 맛으로 피자를 먹는 걸까?

피자의 맛은 십중팔구 도우와 치즈의 맛이다. 그중에서도 치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흔히 치즈는 서양의 발효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60년대 초반부터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치즈의 산 역사를 담은 곳이 임실 치즈마을이다.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느티마을. 마을입구에 가면 젓소가 새겨진 이색 조형물들이 사람보다 먼저 탐방객을 맞이한다. 곳곳에 서는 아직도 공사 중인 흔적이 남아있다. 10월에 있을 치즈축제를 앞두고 마을 정비가 한창이다.



느티마율이 치즈체험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 처음에는 마을 안쪽 젓소농장에서 치즈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소박하게 시작했다. 그런데 가족단위 투어가 점점 입소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2006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2, 3천 명씩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예 마을 이름도 ‘치즈마을’로 바뀌버렸다.

전주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치즈마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험객들 때문에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치즈의 문’이라는 조형물을 거쳐야 한다. 그 위에는 ‘치즈마을’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자랑스럽게 “우리마을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치즈마을입니다!”라고 말한다.

임실 치즈마을은, 탐방객들 설문조사 결과 ‘다시 찾고 싶은 마을 1위’로 뽑혔으며, 2005년부터 시작한 ‘치즈마을 작은음악회’와 ‘치즈체험축제’는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성공한 농촌축제로 꼽히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요인은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탄탄하게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있다.

치즈마을에 도착하면 무엇을 체험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주민들의 안내에 따라 짐을 풀고 나오면 멋진 경운기가 대기하고 있다. 경운기를 타고 시골길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갑자기 한 30년 전쯤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 치즈마을 안내도

전주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치즈마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험객들 때문에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치즈의 문’이라는 조형물을 거쳐야 한다. 그 위에는 ‘치즈마을’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자랑스럽게 “우리마을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치즈마을입니다!”라고 말한다.



◀ 마을정보센터





경운기 드라이브를 마치면 치즈 체험장으로 안내를 받는다. 흔히 치즈 만드는 체험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치즈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이론수업을 시킨다. 우유가 치즈로 변화하는 원리는 먼저 머리로 익히는 것이다.

이론수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치즈 만들기 실습에 들어간다. 목장에서 갓 짜낸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것이다. 우유가 치즈가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우유 속에 우유를 굳히는 역할을 하는 효소 ‘렌넷’을 넣고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주문을 외운다. “우유야! 우유야! 빨리빨리 굳어서 맛있는 치즈가 되어라, 압!” 그렇게 우유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치즈가 완성된다. 마치 두부가 순두부로 변하는 과정처럼 우유 덩어리가 몽글몽글 굳어지면서 치즈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갓 만들어진 치즈가 가공 치즈처럼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생치즈는 맛도 강하고 향도 특별히 구릿해서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가 않다. 고소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붓고 치즈 덩어리는 반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치즈 만들기 체험 중 가장 재미있는 과정이다.

치즈는 손으로 반죽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쫄깃하고 담백해진다고 한다. 쪽쪽 늘어나는 치즈를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밀가루 반죽보다 점도가 훨씬 높아서 웬만해선 찢어지지 않는다. 아이들한테 맡겨 놓으면 서로 더 많이 늘이려고 기를 쓰면서 경쟁을 벌인다. 완성된 치즈는 각자 집으로 가져가도 된다. 정성들여 만

갓 만들어진 치즈가 가공 치즈처럼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생치즈는 맛도 강하고 향도 특별히 구릿해서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가 않다. 고소한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붓고 치즈 덩어리는 반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치즈 만들기 체험 중 가장 재미있는 과정이다.



◀ 치즈의 문 조형물



든 치즈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 체험의 보람도 두 배가 된다.

체험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직접 목장에 가서 젖소에게 우유 먹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젖병에 우유를 넣어서 먹이는 체험인데, 아기처럼 빨아먹는 새끼 젖소가 신기하다. 또 직접 산양유 젖을 짜는 체험도 가능하고 소떼들이 뛰어노는 풀밭에서 ‘초지 썰매타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자연 속의 체험인지라 한번 체험하고 나면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치즈마을 주변에는 산과 들이 펼쳐져 있을 뿐, 이름 난 관광지 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치즈마을을 찾고 있으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체험도 무료가 아니라 1인당 2만 3천 7백원(군청보조 7700원)씩 받고 있다. 그런데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평일에는 1백여 명, 주말·휴일에는 3, 4백 명이 찾아온다고 한다. 숫자가 많은 단체나 성수기인 방학 때 체험을 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2007년에는 무려 3만여 명이 치즈마을을 찾았다. 수입으로 따지면 무려 7억여 원! 수익금은 참여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며, 일정 금액은 경로잔치 비용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또 다음에 올 관광객들을 위해 시설보수나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한다.

치즈마을의 성공은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과 마을 주민들의 조직적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다. 치즈마을의 주민은 20%가 30~40대이다. 다른 농촌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들이 앞장서서 환경농업·팜스테이와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실험농사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정환 신부

1966년에 임실로 찾아온 눈이 파란 서양 신부. 국적은 벨기에였고 이름은 디디에 세르스테반스, 한국 이름은 ‘지정환’ 이었다.

치즈마을의 성공 뒤에는 이 지정환 신부가 있다. 치즈마을에서는 지정환 신부의 지도로 1960년대 말부터 산양을 길러 우유를 생산하고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1959년에 한국으로 파견된 지정환 신부는 부안성당을 거쳐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오게 된다. 지정환 신부가 보기에 당시 전라북도

2007년에는 무려 3만여 명이 치즈마을을 찾았다. 수입으로 따지면 무려 7억여 원! 수익금은 참여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며, 일정 금액은 경로잔치 비용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또 다음에 올 관광객들을 위해 시설보수나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언가 소득이 될 만한 작물을 만들어야 했다. 지정환 신부는 그 작목으로 ‘치즈’를 선택했다. 풀과 젖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치즈를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실에 도착한 지정환 신부는 산양 두 마리를 기르면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위 농민들에게 치즈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전파한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임실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치즈공장이 세워진다.

오늘날 피자 상자에서 보는 지정환 신부의 얼굴에는 그런 역사가 숨어있는 것이다. 현재 지정환 신부는 완주군 소양면으로 옮겨가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다. 지정환 신부 역시 ‘다발성 신경경화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2003년과 2004년에는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당장의 밥 한 그릇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날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지정환 신부. 지정환 신부의 꿈은 임실 치즈마을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 임실치즈마을 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610-1
- 임실치즈마을 전화: 063-643-3705

임실에 도착한 지정환 신부는 산양 두 마리를 기르면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위 농민들에게 치즈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전파한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임실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치즈공장이 세워진다.





▲ 임실 둔덕 마을 전경

9. 소설『혼불』의 원무대 - 둔덕이씨 집성촌

오수 읍내에서 둔남교를 건너지 않고 독방길을 따라 자동차로 10여 분 달리면 오른쪽에 둔덕리가 자리하고 있다. 최명희의 소설『혼불』에 등장하는 매안이씨 가문이 바로 둔덕이씨 집안이다. 작품의 배경이 된 남원시 사매면 매안리와 오수면 둔덕리는 서로 지척지간이다. 수춘교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기가 남원이고, 다리 이쪽 편이 임실이다.

매안의 청호만 하여도 그렇다. 언뜻 그 이름만을 들으면 무슨 넓은 호수를 연상하게 되지만 실상은 마을 뒤의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마을의 뒤편으로는 몇 겹의 산봉우리가 우뚝우뚝 솟은 채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중 높은 봉우리인 노적봉, 팔봉산의 검푸른 웅자, 앞자락에는 탄금봉과 선녀봉, 낮은 뒤편이





날렵하게 혹은 나직이 엮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냥 뒷산이라고 불리는 한 봉우리가 수곡하게, 아주 마을 가까이에 당겨 앉아 있고, 그 아래 방죽이 있었던 것이다. 산이 그렇게 많으면, 그 골짜기마다 저절로 흘러내리는 물만 한자리에 고여 주어도 참으로 흐뭇하련만, 본디 이 근처의 토질이 척박한데다가 산자락의 계곡물조차도 그다지 수량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여름에는 몹시 가뭄을 탔다. 오죽하면 여름 농사철에 한 보름만 비가 안오면, 사람들이 저마다 목을 꺾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는 말은, “산이 먼저 목마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건넌마을 ‘둔덕이’에서는 으레 “매안 굴뚝에 연기 나는가 보아라” 하였다. 그러나 그나마도, 어지간한 저수지만 하나 있다면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산이 먼저 목말라하면서 그만 뒤미처 둥벙만한 방죽의 바닥이 갈라져 버리는데, 사람들은 거북이 등 짝처럼 터지는 방죽 밑바닥을 보고 있으면 심정도 따라서 터지고, 입술이 말라들어 혀연 꺼풀이 일어났다.

-소설 『혼불』 중에서

이처럼 매안과 둔덕은 서로 건넌마을이라고 부르며 지척에 두고 살아왔다. 소설 『혼불』에 등장하는 ‘매안이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바로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인 둔덕이씨 후손들이다.

작가 최명희는 남원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 삭녕최씨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서, 전주이씨 영해군파 집성촌인 사매면 대신리 매안마

매안과 둔덕은 서로 건넌마을이라고 부르며 지척에 두고 살아왔다. 소설 『혼불』에 등장하는 ‘매안이씨’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바로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인 둔덕이씨 후손들이다.



◀ 둔덕 마을 입구



을을 주 무대로 삼았다. 주인공인 이강모, 청암부인, 율촌댁, 효원 등은 바로 삭녕최씨 종가의 종부 3대이다. 청암부인-율촌댁-효원으로 이어지는 종부(宗婦) 3대의 이야기를, 오수면 둔덕리 전주이씨 효령대군과 기자, 강자 항렬과 사매면 대신리 매안마을 전주이씨 영해군과 집안 여인들을 등장시켜 전개시킨 것이다. 실제 노봉리 삭녕최씨와 매안리 전주이씨는 사돈지간으로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최명희는 삭녕최씨 집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작품의 무대로 삼은 것이다.

둔덕이씨 집성촌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집성촌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름난 양반 가문으로, 둔덕이씨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름난 양반 가문답게 마을 안에 여러 문화재들이 남아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정자나무와 튼튼하게 지어진 정자가 있다. 정자 마루에 앉아 마을 앞을 둘러보니 풍수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참 편안한 마을이라는 것을 알겠다. 동구밖까지 짙 펼쳐진 논에서는 벼가 익어가고 있고, 멀리 둘러선 산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 간간히 전라선 열차가 지나가는 풍경이 그림 속의 풍경인 듯 아련하다.

마을 입구 안내판에는 “좌측으로는 팔공산, 우측으로는 노적봉, 정면으로는 노령산맥 사모봉의 정기를 이어받아 형성된 명소”라고 적혀 있다. 5백년 넘게 조상 대대로 충효사상과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학문이 끊이지 않아 세인들로부터 “명사촌”이라 불렸다는 소개 글도 보인다. 지금이야 양반도 가문도 내세울 것 없는 세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둔덕이씨의 위세가 어땠을까 싶다.

이웅재 고가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음을 옮겨본다. 이웅재 고가(전북민속자료 제 12호)를 찾아가는 길이다.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을 보니 저 곳이 이웅재 고가라는 것을 알겠다. 이 고가가 바로 소설 『혼불』에 등장하는 종가집의 원래 모델이다. 소설 무대로 알려진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에도 삭녕최씨 종가집이 있었고, 효원의 모델이라는 박중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2007년 5월 15일 새벽, 갑작스러운 화재로 안채가 완전히 불에 타

둔덕이씨 집성촌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집성촌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름난 양반 가문으로, 둔덕이씨라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름난 양반 가문답게 마을 안에 여러 문화재들이 남아있다.





고 박할머니도 유명을 달리고 말았다. 다행히 이씨 종가집의 실제모델인 이용재 고가는 세월을 이겨내고 살아 남아있다.

1500년경에 세워져 수차례 중수되며 오늘에 이른 이용재 고가. 세월 속에 쇠락했으나 여전히 위용을 간직하고 있다. 이 집에 들어서면 “내 뼈로 가문을 세우리라” 다짐했던 청암 부인의 삶을 그려볼 수 있을까?

이용재는 1500년(연산군 6)경에 이담손이 지은 집이라고 한다. 이담손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 효령대군의 증손이다. 이곳 둔덕리에 최초로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으로, 마을의 입향조라 불린다.

이용재 고가는 조선시대 이 지방 사대부들의 주거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그런데 여러 모로 독특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 우선 편평한 땅이 아니라 경사진 곳에 축대를 쌓아 집을 올렸다. 대지도 네모진 정사각형이 아니라 옆으로 긴 장방형이다. 동남향의 집은 안채, 사랑채, 대문채로 나뉘어져 있고, ㄷ자형 가옥 형태를 이루고 있다.

대문에는 1870년(고종 7)에 이부주에게 하사한 효자정문 현판이 걸려 있다. 안채 뒷편에는 <춘성정사>라는 사당이 지어져 있다. 춘성정은 이담손의 호다.

지금도 후손이 생활하고 있어 마당엔 붉은 고추와 깻대가 널려 있



▲ 이문주 효자 정려 현판



▲ 이용재고가 대문

이용재 고가는 조선시대 이 지방 사대부들의 주거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그런데 여러 모로 독특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 우선 편평한 땅이 아니라 경사진 곳에 축대를 쌓아 집을 올렸다. 대지도 네모진 정사각형이 아니라 옆으로 긴 장방형이다.



▲ 이웅재 고가 안채 (좌)
▲ 이웅재 고가 사랑채 (우)

다. 예전에는 집안 머슴들이 했을 터이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런가. 이 넓은 집안 가꾸고 닦기도 참 힘에 겨운 일이라. 주인장 얼굴이라도 뵈고 싶는데 안채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나지 않는다.

뒷걸로 돌아가 보니 둥근 기와를 겹겹이 겹쳐 쌓아서 아름다운 담을 쌓아놓았다. 유실수 나무가 가득한 텃밭과 살림채의 경계를 기와 담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고가의 기품은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것 아닐까.

마당엔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가을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듯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아하니 원래 ㄷ자 형태였던 집은 새로 달아낸 건물 때문에 거의 ㄱ자 구조로 막혀 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ㄴ자 형태의 건물을 연결시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생활공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다. 집안을 자세히 구경하고 싶은데, 주인이 없으니 그저 발길을 돌리는 수밖에. 돌아오는 길에 지금 집에 살고 있는 분은 16대 후손이라는 말을 들었다.

삼계강사

둔덕리에는 이웅재 고가 말고 또 하나의 문화재가 있다. 삼계강사(유형문화재 제 160호)다. 춘성정 이담손이 1618년(광해군 10)에 창립한 강사로, 인근 7개 부락 7개 성씨(이, 김, 한, 최, 하, 장, 양씨)의 학동들을 교육하는 서재로 운영되었다 한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학원인 셈인데, 사부대 집안의 선비들이 어린 학동들을 위해 일



뒷걸로 돌아가 보니 둥근 기와를 겹겹이 겹쳐 쌓아서 아름다운 담을 쌓아놓았다. 유실수 나무가 가득한 텃밭과 살림채의 경계를 기와 담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고가의 기품은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것 아닐까.



종의 교육 자원봉사를 한 것이다.

삼계강사에 보관되어 있던 서책과 고문서는 전북대 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이 계안은 총 135책 92장으로, 동계 127책, 교계 6책, 서당계 1책, 기타 1책, 고문서 9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수면 둔덕리의 생활사는 물론 향토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모습과 함께 혼례, 상례, 관례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

삼계란 일종의 계모임을 칭하는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면서 마을을 잘 다스리자고 꾸린 일종의 자치 모임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주민들의 교화와 교육이었는데, 지금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서는 삼계강사에서 5년에 1차례씩 계모임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강사계’라 부른다. 오늘날에야 ‘계나 고동이나’다 할 수 있는 것이 계모임이지만, 강사계는 일반적인 친목계나 동갑계와는 달리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동계(洞契)이다. 동계는 정부로부터 징수된 세금과 울력을 징수하고 애경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결속력 높은 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삼계강사에 모여 민족자강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강사의 재산 일부를 헌납하여 오수초등학교가 건립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 이용재 고가 주소 :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456-1

계란 일종의 계모임을 칭하는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이 상부상조하면서 마을을 잘 다스리자고 꾸린 일종의 자치 모임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주민들의 교화와 교육이었는데, 지금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서는 삼계강사에서 5년에 1차례씩 계모임을 갖고 있다.

◀ 삼계강사





▲ 세심 마을의 입구에 세워진 박사골 안내판

10. 그 명성만큼이나 내심 있는 마을 - 삼계면 박사골

요즘에야 흔하디 흔한 게 박사지만, 예전에야 어디 그랬던가. 마을에서 박사 한 명 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임실군 삼계면 박사마을은 “마을에서 박사 났다고 좋아하던 시절”에 붙인 이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돼버렸다.

별칭이라면 모를까, 정말로 ‘박사마을’이라는 데가 있을까 의심스럽다면 임실군 삼계면 박사마을을 찾아보시길 권한다. <박사골 정보화마을>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찾아오는 손님을 반길 것이다.

물론 박사골 정보화마을에도 원래 이름이 있다. 임실군 삼계면 세심마을이 본이름이다. 세심(洗心)이라. 마음을 씻는다는 뜻이니 이 또한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에 끌려 일단 마을 산수부터 살펴본다.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과 노령산맥 산자락이 잘 어우러





저 그 풍광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렇듯 편안한 풍수 덕인지, 세심 마을은 학자가 많이 배출되어 결국은 박사골 마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대체 박사를 몇 명이나 배출한 것인가? 임실군 삼계면은 인구 약 1800명 정도의 작은 산골인데, 박사만 무려 130여명을 배출했다고 한다. 단일 면으로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박사라고 한다. 이만하면 전국 어디에나 내놓을 만한 박사골 아닌가?

내친 김에 임실군에서는 18개 분야에 걸쳐 67억 원이 투자되는 '삼계면 박사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박서관' 조성사업인데, 이 박서관 안에는 삼계면이 배출한 모든 박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동네별, 분야별 박사의 현황과 이력, 업적들이 전시될 예정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산촌에서 박사로 성장하기까지의 피나는 노력"을 증언을 통해 들어본다고 한다.

삼계엿

박사골과 엿이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라고 엿을 붙이는 것을 연상한다면 삼계엿이 유명해진 이유도 짐작이 갈 것이다. 박사가 많아서인지, 삼계엿 때문에 박사가 많이 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지만, 삼계엿은 예로부터 명



▲ 박사마을 돌담길

대체 박사를 몇 명이나 배출한 것인가? 임실군 삼계면은 인구 약 1800명 정도의 작은 산골인데, 박사만 무려 130여명을 배출했다고 한다. 단일 면으로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박사라고 한다. 이만하면 전국 어디에나 내놓을 만한 박사골 아닌가?

◀ 세심마을 광제정



성이 자자했다.

삼계엿은 겨울 동안 삼계면 9개 마을 150여 농가가 참여해 만든 엿이다. 겨울 농한기철이면 마당에서는 고두밥을 짓는 연기가 솟아 오르고 사랑방에서는 아녀자들이 엿을 놀이며 왁자하게 웃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삼계면의 전형적인 겨울 풍경이다.

지금은 '박사골 쌀엿'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삼계엿은 지금도 옛날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손으로 엿가락을 짹짹 늘린 뒤 마루로 통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엿가락을 빼낸다(안방과 바깥의 온도 차이에 의해 엿이 굳기 때문에 한겨울이 아니고서는 전통방식으로 엿을 만들기가 힘들다). 엿가락이 굳어지면 툭툭 분질러가며 쌀엿을 만들어왔다. 지금도 그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영농법인 삼계농산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 삼계엿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엿을 부러뜨리면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게 특징이고, 연하고 바삭바삭해서 이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엿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다.

먼저 장작불로 고두밥을 지은 뒤, 엿기름과 고두밥을 10시간 정도 삭혀서 식혜를 만든다. 식혜를 보자기로 걸러서 물만 솥에 붓고 장작불을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대여섯 시간동안 졸인다. 옛날에 조청을 만들던 방식 그대로다. 식혜물이 검은빛 조청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생강을 첨가해가며 더 졸인다. 졸여진 조청을 두 사람이 맞잡고 좌좌 늘이기를 반복한다. 처음에는 거므스름했던 엿가락이 늘이는 횟수를 반복할수록 하얗게 변한다. 엿가락이 사람 손가락 굵기 정도 되면 차가운 곳으로 엿가락을 옮긴다. 엿가락이 굳으면 7cm 크기로 잘라 냉각상태에서 콩가루를 보기 좋게 입힌다.

삼계엿이 이에 달라붙지 않고 바삭바삭한 것은, 설탕으로 맛을 내지 않고 엿기름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식혜물에 헛개나무, 오가피나무 등의 약재를 첨가해 웰빙 건강엿도 생산하고 있다.

산머루 축제

삼계면에서 내놓고 있는 또 하나의 경쟁상품이 있다. 바로 친환경 산머루다. 섬진강 부근에 자리한 '박사골 산머루' 재배단지는 위낙 자연조건이 좋은 탓에 따로 농약을 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유기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영농법인 삼계농산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 삼계엿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엿을 부러뜨리면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게 특징이고, 연하고 바삭바삭해서 이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 세심 자연휴양림

임실군에서는 친환경 산머루를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9월 중순경에 산머루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산머루로 만든 새콤달콤한 와인은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추석, 설날 선물용으로 동이 날 지경이다.

질 퇴비만으로 키워낸 박사골 산머루는 빛깔이 좋고 당도가 뛰어나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산머루는 포도처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머루와인, 산머루주, 산머루즙 등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임실군에서는 친환경 산머루를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9월 중순경에 산머루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산머루로 만든 새콤달콤한 와인은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추석, 설날 선물용으로 동이 날 지경이다.

축제장에 가면 산머루 따기, 머루주 담그기와 즙짜기, 머루 천연 염색, 머루비누 만들기, 치즈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짬뽕에 체험 등을 할 수 있고, 참가비 5천원만 내면 머루를 직접 따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삼계면 산머루작목반에는 10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400톤의 산머루를 생산한다고 한다. 겨울에는 짬뽕으로, 여름과 가을에는 산머루로 농가소득을 톡톡히 올리고 있는 삼계면. 박사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 내실을 차곡차곡 다져가고 있다.

- 삼계면 박사골 주소: 임실군 삼계면 박사마을





▲ 임실 용암리 석등

11. 완벽한 석조예술의 극치 - 용암리 석등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광명등”이라 부른다고 했다. 천지를 밝혀 주는 광명등. 어떤 등이길래,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증을 안고 신평면 용암리로 향한다.

전주에서 임실로 가는 길, 관촌역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신평면 소재지가 나온다. 이정표가 시원치 않아 소재지에서 길을 물었다. 왼쪽 길로 곧장 가면 다시 큰 이정표가 나온다고 한다.

3km쯤 달렸을까? 길을 일러준 사람 말대로 커다란 이정표가 눈에 띈다. 용암리 석등으로 보려면 오른쪽 마을로 들어가라는 표시다. 마을 한가운데 석등이 있단 말인가? 일단 마을회관 앞에 주차를 하고 사방을 둘러보며 석등을 찾는다. 다행히 석등은 금방 찾아진





다.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석등이 서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석등(보물 제267호).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석등으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그레봤자 돌을 깎아서 만든 등일 뿐인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보물로 지정이 된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광명등”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지금까지 석등은 그저 사찰의 일부로 여기고 지나쳤을 뿐인데, 용암리 석등은 사찰 없이 벌판에 우뚝 서있는 형국이어서 저절로 눈길이 간다. 석등은 원래 사찰이나 능묘, 정원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 두는 등이다. 사찰이나 묘의 규모에 따라 석등의 크기도 천양지차다.

불국사 석등, 화엄사 석등, 실상사 석등처럼 우리나라 석등은 대부분 불교 사찰의 배치양식에 속해 있다. 절마다 일주문이 있고 본전이 있고 석탑이 있듯이, 석등 또한 자연스러운 사찰 구조물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불을 밝히는 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을 하지만, 또한 사찰 정원의 풍경을 돋워주는 조경적 역할도 함께 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용암리 석등은 집도 절도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것일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 지난 1992년도부터 5차례나 줄기차게 발굴 조사를 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진구’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돼 이곳이 보덕화상의 제자가 세운 ‘진구사지’임이 밝혀졌다. 진구사가 번성했을 당시에는 수도승만 해도 천 명이 넘었다고 하

.....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석등(보물 제267호).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석등으로 이름이 났다고 한다.

불을 밝히는 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을 하지만, 또한 사찰 정원의 풍경을 돋워주는 조경적 역할도 함께 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용암리 석등은 집도 절도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것일까?
.....



◀ 임실 용암리 사지 전경



며, 석등의 규모로 미루어볼 때 대단히 거대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용암리 석등 뒤편에는 거대한 절터가 복원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터를 '진구사 터'라고 하지 않고 '중기사 터'라고 부른다. 1924년에 박봉주씨(당시 주지)가 '중기사'라는 이름으로 절을 증건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진구라는 이름의 기와가 발견되기 전이라, 사람들은 다 '중기사'라고 불렀다.

진구사든 중기사든, 하여튼 절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터 한 가운데 석탑의 일부가 수습된 채 모아져있다. 석탑의 지붕돌인 옥개석과 탑신의 일부다. 안내판이 없는지라 언제 출토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절터의 축대와 계단은 아직도 튼튼해 보인다. 그런데 마치 마술이라도 부린 듯, 이 넓은 절터에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불행히도 용암리 절터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 따르면, 몇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설은, '난중소실설'과 '홍수설'이다. 임진왜란 때 절이 모두 불탔다는 것이 첫 번째 설이요, 절 앞을 흐르던 섬진강이 엄청난 홍수로 범람하는 바람에 절도 승려도 모두 떠내려갔다는 것이 두 번째 설이다. 하지만 둘 다 웬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쟁과 홍수는 누구도 피할 길 없는 재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듯 웅대한 석등을 가졌던 절이 하루아침에 석등만 남기고 사라졌단 말인가?

이제 찬찬히 석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쳐다볼수록 크다. 과연 저 등에 불을 밝힌다면 광명천지가 도래할 듯도 싶다. 높이만 5미터가 넘는지라, 어떻게 불을 밝혔는지 의문이 간다. 아마 사다리 같은 것을 밟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석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한다. 먼저 화사석이다. 화사(火舍)는 말 그대로 '불의 집'을 말한다. 석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화사석, 즉 등불의 집이다. 그리고 화사석 위에 올리는 돌을 옥개석이라 한다. 지붕돌이다. 이 화사석과 옥개석, 그리고 이것을 받쳐주는 간주석이 석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다.

삼국시대 석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기둥돌인 간주석이 화사석과 옥개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쳐다볼수록 크다. 과연 저 등에 불을 밝힌다면 광명천지가 도래할 듯도 싶다. 높이만 5미터가 넘는지라, 어떻게 불을 밝혔는지 의문이 간다. 아마 사다리 같은 것을 밟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석등은 화사석이다. 화사(火舍)는 말 그대로 '불의 집'을 말한다. 석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화사석, 즉 등불의 집이다.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등인 미륵사지 석등도 간주석은 사라진 채 화사석만 출토됐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석등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이유는 간주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자형의 기둥이 아니라 볼록 튀어나오게 볼륨감을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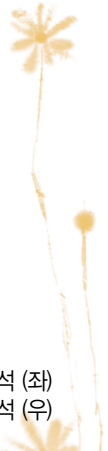
그 중 하나가 ‘고복형 간주’ 인데, 고복형(鼓腹形)이란 ‘장구 모양의 배’를 뜻한다. 간주 부분이 배불뚝이처럼 볼록 튀어나오고 중간 부분은 다시 잘록 들어갔다가, 그 윗부분이 다시 볼록 튀어나와서 흡사 장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용암리 석등 역시 튼튼한 고복형 기둥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용암리 석등을 멀리서 보면 별로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석등만 홀로 서 있어서. 오히려 처음에는 왜소해 보인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석등은 TV화면의 거인처럼 점점 크게 다가오다가, 끝내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만다.

특히나 용암리 석등은 ‘큼직한 귀꽃’이 유명한데, 석등의 덮개(옥개석) 끝부분에 꽃처럼 볼록 튀어나온 장식을 말한다. 귀꽃이 너무나 웅장해서 오히려 약간 비대칭으로 보일 정도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석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등이요, 이곳 임실 용암리 석등이 크기로는 두 번째다.

이렇듯 장한 위용을 가지고도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아마 석등의 윗부분이 파손돼 완벽한 원형이 아닌 이유가 클 것이다. 그래도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과, 비바람에도 쓰러지

용암리 석등을 멀리서 보면 별로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석등만 홀로 서 있어서. 오히려 처음에는 왜소해 보인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석등은 TV화면의 거인처럼 점점 크게 다가오다가, 끝내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만다.



- ▼ 용암리 석등의 화사석 (좌)
- ▼ 용암리 석등의 간주석 (우)



지 않을 것 같은 듄직한 자태는 우리나라 어느 석등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용암리 석등을 보고 나니 “예술은 진보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을 뿐”이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용암리 석등을 보면, 우리나라 석조예술이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천 년 전에 용암리 석등으로 완성돼 버린 듯한 느낌일까.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허탈한 마음마저 들 정도다.

암리 석등을 보고 나니 “예술은 진보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을 뿐”이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용암리 석등을 보면, 우리나라 석조예술이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천 년 전에 용암리 석등으로 완성돼 버린 듯한 느낌일까.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허탈한 마음마저 들 정도다.

임실용암리 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지금 중기사 터에는 석탑의 일부만 돌처럼 쌓여있지만, 수 년 전에는 이곳에서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용암리 석등에서 서쪽으로 약 30미터 지점에서 발굴된, 석조 비로자나불상과 철불상이 그것이다. 석조 비로자나불상은 지방유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불상을 올려놓은 연꽃무늬 좌대만 지목했지만, 불상에 칠해진 호분을 제거하고 보니 불상과 좌대가 한 짝이었음이 밝혀져서 나중에는 불상도 문화재에 포함됐다. 문양이나 형태로 보아 용암리 석등과 동일한 시대인 후기신라시대의 유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도 이를 보관할 전각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수년째 보관해오고 있다. 이 마을에 살던 무속인이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문화재에 걸맞는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용암리 석등과 석조비로자나불상만으로도, 임실군이 후기신라시대 불교문화의 본산지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 용암리 석등 주소 :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189



TOURISM STORYTELLING

전라북도 관광 스토리텔링 210선

영조

발 행 일 : 2009년 6월

발 행 처 : 전라북도청

연 구 총 괄 : 최 낙 환

고증및사진 : 하 태 규

글 쓴 이 : 김 선 경

비매품